

문화

광주시박물관·미술관연합회 '無等·무등산'전

1부: 8일~25일 국립광주박물관

2부: 28일~10월 9일 무등현대미술관



원효사 출토 유물 '불상'



송기동 작 '달빛연가'

무등산, 견줄 수 없는 아름다움

유물·사진·그림 전시... 사진 8470장으로 만든 영상물 '무등제색도' 눈길

유물과 사진, 그림에 담긴 무등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과 광주시박물관·미술관연합회는 합동으로 문화재와 예술 속에 담긴 무등산의 모습을 함께 전시하는 '無等·무등산'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오는 8~25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며 문화재와 사진 작품을 선보이고, 2부는 오는 28일~10월 9일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리며 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1부 전시에는 무등산 관련 소장 유물과 함께 15명의 사진작가가 참여한 '無等의 마음'을 주제로 다양한 사진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고(故) 송진화씨를 비롯해 기우경·김미정·김영성·김태성·문월식·박재완·박정선·송경욱·송기동·엄만희·이병호·이춘홍·정용현·진기정씨 등이다.

광주일보 사회2부 기자인 송기동씨는 이번 전시에 원형 영글에 별이 흐르는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담은 '달빛연가'와 사진 영상작인 '무등제색도'(無等彩色圖) 등을 선

보인다. 무등제색도는 무등산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13분 길이의 영상물이다. 송씨는 비디오 카메라가 아닌 일반 DSLR을 이용해 일정시간(3~15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후 동영상으로 만들었다. 인터벌(interval) 촬영이나 '타임 랙스'(Time-lapse)라고 부르는 기법이다. 애니메이션을 만들듯 총 24시간 17분동안 찍은 8470컷의 사진을 활용했다.

완성된 영상물은 무등산 위로 흘러가는 변화무쌍한 구름의 흐름, 비겐 후 빛의 변화, 일몰후 빛의 도시로 변하는 광주 시가지, 빠르게 움직이는 서석대 안개, 여명의 새벽하늘 등 다채로운 무등산의 면모를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빠른 움직임으로 새롭게 보여준다. 작품은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50인치 PDP 대형 TV를 통해 볼 수 있다.

제목은 비겐후의 인왕산 모습을 '진경산수'(眞景山水)로 화폭에 담은 조선시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에서 따왔다. 제(霽)는 비가 갠다는 의미다. 8월말 유난히 흐리



최민엽 작 'in my city'

고 비가 많이 내렸던 기상환경에서 작가는 무등산의 구름과 비, 바람을 주 소재로 삼았다.

한편 2부 전시에는 강운·국광운·국중호·김영태·김준호·류재웅·박상권·박상화·박석규·박준선·설 박·윤일권·임병중·장찬홍·최미연씨가 참여해 화폭에 담긴 무등산을 선사한다. 문의 062-570-705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가위 귀성객 위한 '국악 한마당' 잔치

세번째 '해설이 있는 음악회' 시립국극단 9~10일 유·스퀘어 야외공연장

광주일보와 광주문화재단(관장 정창재)이 공동주최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의 세번째 주자는 광주시립국극단이다. 9~10일 이틀간 오후 7시 30분 광주 광천동 유·스퀘어 야외공연장.

광주시립국극단(예술감독 윤진철)의 이번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12일)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위한 특별한 무대로 꾸며진다.

'해설이 있는 한가위 국악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

윤진철 감독은 우리의 전통음악을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공연 내용으로는 길놀이와 판굿을 시작으로 대금독주, 가야금병창, 기악합주, 남도민요, 부채춤, 판소리, 강강술래 등을 보여 줄 예정이다. 시립국극단의 수시공연이기도 한 이번 음악회는 무료다. 참가회비는 공연시간 10분전 까지 유·스퀘어 야외공연장으로 오면 된다. (062)526-03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국극단의 남도민요 공연 모습.

어번폴리 감상하고 상품도 받고

광주비엔날레 재단, 관람 투어 이벤트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10월 23일까지) 특별프로젝트로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한 건축조형물 어번폴리를 둘러보고 상품도 받는 이색 행사가 열린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광주 옛 읍성터에 설치된 9곳의 어번폴리를 관람한 뒤 스탬프를 찍어 투어가 끝난 후 광주시에 제출하면 선착순 200명에게 도서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참여 방법은 어번폴리를 관리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된 ▲장동사거리 ▲김재규경학원 ▲광주세무서 사거리 ▲구시청사거리 ▲대성학원 등 6곳에서 스탬프를 받으면 된다. 자원봉사자들이 없는 다른 구간은 인근 구간에서 대신 스탬프를 찍어주고 있다.

또 스탬프 리플렛을 가지고 인근의 정해진 맛집 15곳을 찾으면 5%가량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문의 62-608-422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악음반 첫 그래미상 후보에

'정가악회 풍류 가곡' 월드뮤직상·서라운드 음향상 등

지난 2009년에 열린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락(樂)' 색션의 큐레이터였던 악당이반의 김영일 대표가 제작한 음반이 세계적인 음악상인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다.

국악 음반사인 악당이반의 김영일 대표는 이 제작사에서 만든 음반 '정가악회 풍류 가곡'이 내년에 열리는 제54회 그래미상 후보작으로 올랐다고 5일 밝혔다.

국악 음반이 그래미상 후보로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음반이 후보로 지명된 부문은 최우수 월드뮤직상 최우수 서라운드 음향상이다.

'정가악회 풍류 가곡'은 국내에서는 지난 5월, 미국에서는 6월에 발매

됐다. 이 음반은 일반 CD보다 음질이 좋은 슈퍼오디오CD인 SACD로 만들어졌다.

김 대표가 국악 음반으로 그래미상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매우 역설적이었다. 바로 한국인에게 국악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미상은 NARAS(전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1년 동안의 우수한 레코드와 앨범을 선정해 수여하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1959년부터 시상식이 시작됐다.

그래미상을 받은 한국인으로는 클래식 음반 엔지니어 황병준(2008년)과 실내악단 파커 콰르텟의 김기현(2011년) 등이 있다.

병원서 만나는 작은 전시회

'밝은안과 21' 개원 12주년, 16일까지 백현호 초대전

'병원 속 갤러리' 광주 밝은안과 21 내 밝은갤러리가 병원 개원 12주년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한국화가 백현호씨의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백씨는 진경산수와 추상화를 넘나드는 '천지인' '꽃그림' 시리즈 등을 선보인다.

이들 작품은 반복적 덧칠과 선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했다. 채색 위에 다시 반복해 중첩시킨 반투명한 백색은 산

락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대구대 대학원을 졸업, 개인전 12회와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등 200여회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의화대전 대상과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고, 현재 전통과형상회, 창목회, 현대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8-245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백도 1'

장성 필암서원 9일 추향제

장성 필암서원 산양회(회장 오인근)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원 청절당에서 추향제(秋享祭)를 개최한다. 이번 추향제는 심우영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 이사장(전 총무처 장관)을 초헌관으로 유림, 산양회 회원, 종친들이 참석해 하서 김인후(1510~1560년) 선생을 추모한다. 또

하서 추모 한글백일장 시상식도 함께 한다.

필암서원측은 이날 참석자들을 위해 광주~장성 필암서원간(광주공원출발 오전 9시, 광주문화회관 후문출발 오전 9시20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문의 010-6712-888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eumssoo Jang restaurant. Features a woman in traditional Korean attire and text: 'www.geums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월가음에도 정성을 다해 고백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Advertisement for movie theaters. Features logos for 'moviehelic', 'MEGABOX', and 'CINUS'. Lists movie titles and showtimes for each theater.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www.megabox.co.kr', 'www.cinus.co.kr', '1544-0600', '1544-0070', '1588-7941'.